

열두번째 메일

아브라함의 아내 '사라' 가 '헤브론' 에서 127년의 생을 마쳤습니다. (창 23:1)

성경에 한 여인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. 그만큼 사라의 죽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. 인간의 긴 역사속에서 많은 것이 변해왔고 시대마다 바뀌어 왔지만 한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 죽어 장사되는 것입니다.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 가야 하기때문입니다. (창 3:19)

그렇기때문에 아브라함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할 묘지를 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. 예수님에게도 잠시 묘지가 있었습니다.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.

사라는 아브라함을 고향 '우르' 에서 만나 결혼한 후 줄곧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.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그리고 인생의 이런 저런 굴곡을 함께 겪으며 늙어갑니다.

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땅 중에서도 '마므레 앞' 에 있는 '막벨라 굴' 을 사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내주고 싶어했을까요? 그 '땅' 이 비옥해서 일까요? 혹 그곳이 가장 해가 잘드는 양지 바른 땅 이었기 때문 일까요?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은 '은 400세겔' 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.

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두번씩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려 갔다

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욕을 면하며 구함을 받은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. 90세의 나이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며 온갖 치욕을 다 견뎌낸 아내 그러다 다 죽어버린 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순산하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본 남편으로 사라를 쉽게 보낼수가 없었습니다.

사실 아브라함의 부와 재물은 아내를 넘겨 주고 ‘바로’와 ‘멜기세덱’ 에서 그 대가로 재물을 받은 것이었습니다. 아브라함이 부하게 된것은 사실 ‘사라’ 의 덕이 큼니다.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심정입니다.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아내의 덕이요 남편의 덕입니다. 저도 정말 아내가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이듭니다.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함께 살 날이 줄어들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다짐해 봅니다.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48년을 더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혼자 살지는 못했습니다. 그는 후에 ‘그두라’ 와 재혼 했습니다. 그리고 여섯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.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의 모습을 보니 저도 아브라함처럼 될까 두렵습니다.

그래 나도 아내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. 한사람이 혼자 남아 30-40년을 더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. 이 험난한 시대에 남편을 일찌 보내고 평생을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오신 이 시대의 어머니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.

만약에 당신과 나도 아내나 남편이 먼저 죽으면 과연 남은 생을 혼자 살 자신이 있을까요?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라처럼 120년 정도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 욕심이 너무 큰것같습니다.

